



2019년 8월 11일(제941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인제 어디서나 깨어 기다리는 삶”

오늘 복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도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가장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일상을 옹기다 마쳤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는 맺고 끊지 못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작하지도 못한 일, 반도 끝내지 못한 일, 결실 없이 어지럽게 벌여만 놓은 일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느님을 뵈는다면 한 삶을 보람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두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끝까지 마치셨고,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장병들도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루거나 나태해지는 유혹, 다음에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허리에 띠를 두르고,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효인(요셉) 신부
철성(7시반)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18,6-9

회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 시 히브 11,1-2.8-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루카 12,32-48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윤유오 야고보



성인명: 윤유오 야고보 (尹有五 Jame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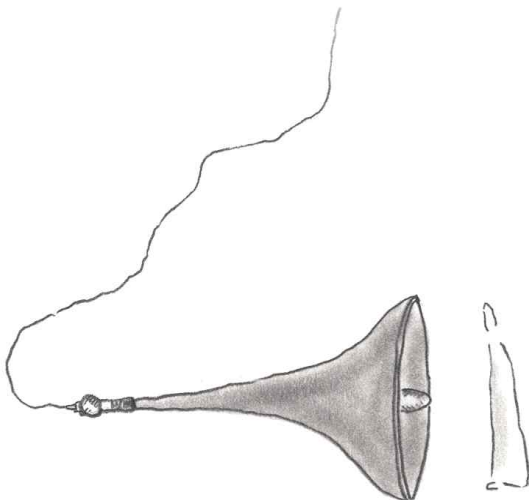
윤유오(尹有五) 야고보는 경기도 여주의 점들(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서 태어나 인근에 있는 양근 한감개(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로 이주해 살았다. 1795년에 순교한 교회의 밀사 윤유일 바오로는 그의 형이다.

일찍부터 형 윤유일 바오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된 윤 야고보는 고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교리를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형이 순교한 뒤에는 인근에 사는 조동섬 유스티노,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등과 만나 기도 모임을 하거나 교리를 연구하면서 신심을 북돋웠다. 또 1795년 초,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지방 순회에 나서 양근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에는 신유박해가 일어나 각처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거나 순교하게 되었다. 이때 윤 야고보도 양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갖가지 문초와 형벌을 당하면서도 전혀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관장의 강요에도 단호하게 배교를 거부하였다.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형이 가르쳐 준 십계명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적을 밤낮으로 외우고 익혔으며, 진실로 배교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관장은 윤유오 야고보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801년 4월 27일(음력 3월 15일), 양근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큰길가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은 존재로

귀가 아닌
은음으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

성화이야기

이삭의 희생



렘브란트, 1635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93x133cm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상트 피테르부르크

그림 오른쪽 하단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쌓아둔 장작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이삭은(아마도 손이 묶인 채로) 흰 목을 드러내고 누워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채다시피 잡으며 이를 말리고 있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아브라함은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그는 29세였으며,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이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죽은 후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화가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무섭다’고 하면서도, 이삭은 천사가 보호해 주어서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가차 없으시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브라함도 아무 의심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목회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성비실리오 김천우 신부

◆ 교구청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13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